

### /지역 단신/


#### 담양출신 도의원 사무실 군청에 개소

담양군이 13일 담양출신 도의원 사무실을 군청 본관에 개소했다. 이번 도의원 사무실 개소로 도의원과 군민, 군청 직원들이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수 있게 됐다.

담양출신 강종문의원(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송병근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사무실 개소식에서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민원 해결과 담양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 신안 동거부부 6쌍 합동결혼식



신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처자)주관으로 동거부부 6쌍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다. (사신)

이날 합동결혼식은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하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찬 부군수 주례로 진행됐다.

이날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드레스와 신부한복 등 결혼식 비용을 비롯해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했으며, 신혼여행자인 신안군 증도면 옐도라도 리조트에서는 숙박비 50%를 할인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해남 22억 들여 보건기관 6곳 신축

해남군이 내년에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개 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한다.

해남군은 국·도비와 군비 22억원을 투입, 삼산과 계곡·현산 보건지소와 신정·동리·어불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해남군보건소는 또 이들 보건기관에 한방의사를 배치해 양·한방 동시 진료체계를 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3개 보건기관의 신축을 완료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k@

## 1km도 못되는 송정리역~국도 13호선 도로공사

### ‘토막 예산’에 6년간 고작 436m 개설

#### 미개설 구간은 1년째 공사 중단

총 연장 966m에 불과한 광산구 송정동 송정리역~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공사가 착공 6년이 넘도록 예산부족으로 공정 48%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건설관리분부는 지난 2000년 9월 공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국도 13호선에서부터 송정동 869-4번지까지 연장 436m의 도로를 개설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초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광주시 건설관리분부는 그러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공사 중단 1년여가 되도록 나머지 구간에 대한 착공은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개설 구간 530m에 대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9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원이 고작으로 송정동 869-4번지에서 매일시장간 편입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협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람병원 사거리에서 송정리역 방면으로 진행되는 각종 차량들이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기 일쑤인데다 주

민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 주민 신모씨는 “6년이 지나도록 1km에 불과한 짧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하루빨리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이 이뤄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건설관리분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안전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정리역과 온세계 아파트를 잇는 도로 개설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o@

## 강진청자, 이번엔 日本行

#### 내년 도쿄 등 6개 도시 순회전 日 총리부인·왕족 참석 예정

강진군이 전년 비색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강진청자의 일본 전시회를 갖는 등 세계화에 나선다.

강진군은 13일 “내년 6월 일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등 주요 도시 6곳에서 강진청자 순회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시회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때 국민용 식기로 진가를 발휘한 청자상감문화국화문합을 비롯 청자상감도란문표형주자, 청자투각칠보문향로 등 국보 재현작품 수십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강진지역 민간요소에서 생산된

다양한 청자제품도 함께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 순회전에는 한류에 관심이 많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야기(昭恵) 여사와 일본 왕족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청자의 세계화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특별전에 이어 지난 7월 유럽의 대표적 도자기 생산도시인 프랑스 남부의 리모주시 전통 도자기 축전 특별전 참가 등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전은 강진청자가 빛을 본 지 1천년만에 일본 나들이를 하는 것”이라며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행운의 호박’ 첫 선

13일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변동택(43)씨의 비닐하우스에서 ‘행운의 호박’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행운의 호박’은 표면에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와 달마시안, 십자가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변씨는 ‘행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라는 호박 작곡비를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 화순군, 민원인 접견실 설치

#### 공무원 업무 효율성 향상위해 군청 실·과 사무실 방문 금지

화순군이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들의 일선 실·과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고, 별도의 접견실에서 직원들을 만나게 하고 있다.

화순군은 민원인들의 잦은 실·과 방문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달초부터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했다.

접견실은 군청 2층 군수실 앞에 7~8

평 규모로 안내원도 1명 배치됐다.

민원인이 접견실을 방문하면 안내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접견실에서 민원인과 만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 분청과 의회동, 민원동으로 나뉘어 민원인들이 실·과를 찾기가 어렵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어떻게 실·과로 찾아온 민원인들을 접견실에서 다시 만나고 할 수도 없다”며 “오리더 ‘군청 문턱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민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고구려 역사·나주음성 체험 하세요

#### 시, ‘주몽’ 세트장 활용 주말 관광상품 개발

나주시가 드라마 ‘주몽’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나주시는 13일 “주몽 촬영장인 삼한지 테마파크와 나주음성관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인 나주시투어를 개발, 25일 첫 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DMZ투어 리스트’와 시투어 여행사 지정 협약을 가졌다.

이 시투어는 매주 토·일 두차례 광주역을 출발, 나주음성 4대문 중 한 곳인 동점문과 금성관, 목문화관 등을 둘러본 뒤 주몽 세트장과 천연염색문화관 등을 체험한다.

지역 전통음식인 나주곰탕이 점심으로 제공되며 지역 농특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다. 요금은 어른 2만원, 학생 1만7천

원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평일 운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삼한지 테마파크에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 한민족(고구려)의 역사 체험 현장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몽의 인기를 자연스럽게 관광상품으로 연결한 이 시투어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민의 관광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장성 ‘無人 양심가게’ 몰양심에 ‘흔들’

### 도난 사고 잇따라 CCTV 설치

주인 없는 ‘아름다운 가게’로 널리 알려진 장성의 ‘양심가게’가 최근 절도사건이 잇따르면서 빛을 바래고 있다.

13일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신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초 문을 연 양심가게에 위지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급기야 CCTV를 가게에 설치했다.

이 양심가게는 마을 구관장이 운영난으로 지난해 3월 문을 닫자 마을 이장 박충렬(46)씨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비 500만원을 털어 마련했다.

‘주인 없는 가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주민들은 차츰 서로를 신뢰하며 가게를 키워가고 3

평에서 시작한 가게는 어느새 10평으로 늘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인 명소가 된 이 가게는 그러나 처음 문을 열때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께 담배인삼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담배자판기가 탈렸고 25일께는 누군가 가게 나무 금고를 부수고 10여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다.

급기야 주민 박씨는 1일 교육자책으로 양심가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장성=고재민기자 jbgoo@



고유가 시대의 화수석!!  
초절전형, 고효율 오일식·전기식 월방 난로

35~75%의 난방 절약 효과

국내 유일 평부조달형 난방

난방비 절약 NO!!  
그물도, 잠에 NO NO!!

민도국산민도국 특등 천연사슴뽕

T.062-431-4312  
062-431-4314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

제주여행 2박3일 78,000원